

강제된 조건에서의 윤리적 사고

「윤리적 추론」과 「사회심리학 및 실험」강의페어링

심리학과 2학년 201421874 이자윤, 이진희 교수님 지도

목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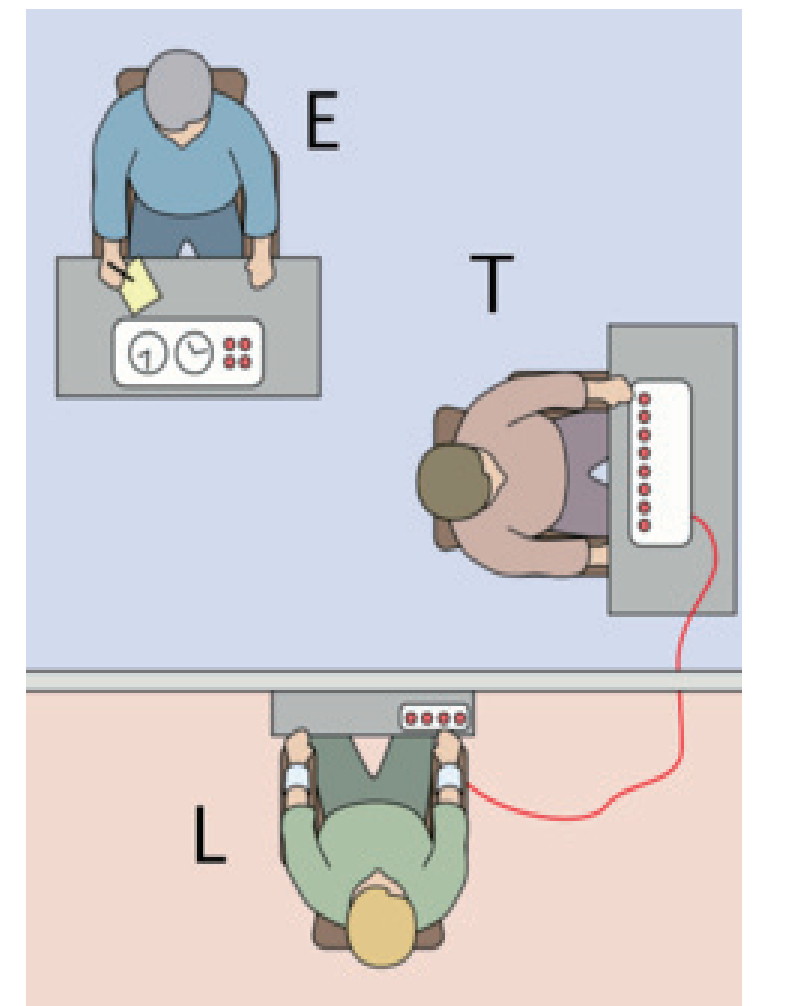
사회심리학의 실험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를 종종 다룰 때가 있다. 실험을 하고 난 후 결과 분석을 하지만, 보통 사회심리학에서는 직접적인 개선의 방법을 논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윤리적 문제를 다룬 실험을 한 후에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적용하는 것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과정이다. 사회심리학의 실험 결과와 분석에 윤리적 추론과 사고를 연결함으로써 이를 보완해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사회심리학-밀그램의 파괴적 복종 실험

여러 실험과 현상의 관찰 결과, 사람들은 최소한의 압력에도 동조하고 복종한다. 그렇다면, 권력이 있어 보이는 낯선 사람이 죄 없는 다른 사람에게 잔인한 행위를 하라고 강요한다면 그에 복종할까?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Stanely Milgram)은 이에 궁금증을 느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절차와 결과〉 E : 감독관(실험자), T : 교사역할(피험자), L : 학생역할(연기자)

실험은 '처벌의 강도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커버스토리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감독관은 교사 역할의 피험자에게 학생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15V에서 최대 450V까지 전기 충격을 가하게 하였다. 전기 충격 장치는 가짜이지만 피험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실 연기자이다. 학생은 계속해서 문제를 틀렸고, 틀릴때마다 전압은 점점 높아져 갔으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감독관은 피험자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으니 실험을 계속하라고 하였다. 실험 전에는 0.1%만이 450V까지 전기 충격을 줄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험 결과 65%의 피험자가 450V까지 주었고, 전원이 300V를 주었다. 이렇게 전기충격을 준 피험자들은 악인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이 실험은 권력에 복종하여 제 3자에게까지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권력에 복종한 결과가 잔인한 결과를 낳게 되었을 때, 이를 '파괴적 복종'이라 한다.



윤리적 사고와 윤리적 원칙

윤리적 추론은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덕적 우위를 모색하고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1. 윤리적 사고는 규정적이다. 윤리에 관한 선택은 나에게 옳은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옳은 것에 토대를 둔 선택이다.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관적 수준'에서, 도덕적 추론이라는 '비판적 수준'으로 이행해야 한다. 윤리적 사고를 할 때 비판적 수준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윤리적 관점 때문이다.
2. 세 가지 윤리적 원칙
 - 1) 네 자신과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라.
 - 2) 모든 인격을 공정하게 대우하라.
 - 3) 1), 2)와 일관적이면서, 영향을 받게 될 다수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행위 규칙을 채택하라.

파괴적 복종 감소 방안

사회심리학에서는 파괴적 복종의 원인 분석으로 권위자의 권력, 책임 없음, 역할의 힘, 점진적인 특성을 들고 있다. 또한 실험 결과 파괴적 복종이 감소하는 경우는, 복종의 결과로 해악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복종자의 책임임을 인식시켜 주는 경우와 불복종하는 다른 사람이 존재할 때이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행위자의 의지에 기초하는 것이 아닌 반면, 책임감은 행위자의 의지에 부분적으로 기초하기 때문에, 본 페어링에서는 '책임감'에 초점을 맞춰 윤리적 추론과 연결해 파괴적 복종의 감소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물론 사회심리학 실험 분석에 따르면, 파괴적 복종 상황에서 책임감 인식은 타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스스로 책임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알려줘야 책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는 타인의 존재 유무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므로 상당히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타인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책임감을 인식할 수 있어야 안정적으로 파괴적 복종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는 윤리적 사고와 비판적 합리주의 태도를 가짐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도덕적 우위에 관한 확고한 기준을 알고 윤리적 원칙을 숙고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둘 중에 후자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 전자는 비판적 분석과 평가가 결여된 것인 반면 후자는 스스로의 사고에 기초해서 판단한 것일 뿐 아니라 그 판단은 비판적, 윤리적 사고를 통해 정당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며 다수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선택하라는 윤리적 원칙 역시 비판적, 윤리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 숙지함으로써 복종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다.

한계 및 결론

윤리적 사고를 하고 비판적 합리주의 태도를 갖는 것이 실제로 책임감의 인식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경험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점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현실에 적용하여 사회심리학의 한계를 윤리적 추론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검증해 볼 것을 제언한다.

현실 상황에서 우리는 많은 순간, 권력에 복종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 합당한 권력도 있지만, 그 중에서는 분명 부당하고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명령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명령에 맹목적으로, 즉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따른다면 결과는 매우 처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확고한 도덕적 우위를 지키고, 윤리적 원칙을 가지고 사고하여야 한다. 또한 그런 윤리적 사고가 사회심리학의 한계의 어느 지점에 적용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마이애스 사회심리학〉 David G. Myers 저, 이종택, 홍기원 외 1명 역, 한울, 2015

〈윤리적 사고와 논리〉 휴 머서 커틀러, 맹주만, 김진형 역, 철학과 현실사, 2009

